
저자 (Authors)	박창길
출처 (Source)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6.2, 37-37(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실험동물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17510
APA Style	박창길 (2016).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국내 동물실험윤리의 한계와 전망.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3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국내 동물실험윤리의 한계와 전망

박 창 길

성공회대학교

E-Mail : parkc@skhu.ac.kr

국내 동물실험윤리현황을 “동물복지의 훼손—동물복지의 인지/관찰체계—지침/관리제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ILAR 등의 자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으로 복지가 훼손되더라도 이를 잘 인지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점검하고, 또 이를 제도가 되게 하는 지침과 방법, 절차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동물복지를 담보하는 절차와 제도가 없이는 동물의 복지훼손과 고통을 방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국내의 지도적인 우수 실험 시설들이 제대로 된 지침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표준지침은 동물복지를 Goal로 하며, 그 개념과 규범으로 일관되게 꿰어져 있는 미국의 NIH 가이드라인과 그 형식과 내용을 비교해보아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국내의 동물실험제도는 매우 폐쇄적이어서 일본의 경우, 오사카대학, 토교대학 등 연구시설이 지침, 동물실험현황, 외부감사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도 UC버클리 등 거의 모든 대학과 일부 연구시설이 모든 Guideline과 비교적 상세한 SOP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공개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神-人間-動物(自然)”이라는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中世 세계질서와 계몽주의 이후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내재된 폭력성과 대량 파괴를 문명차원에서 극복하려는 것이 큰 時代精神이며, 동물실험윤리에서 種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가치체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기 위해서, 또 유례없는 유전자 조작동물의 생산으로 인한 제대로 된 윤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동물실험의 正當性의 성격과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Benefit/Harm분석을 통해서 정당성을 평가를 이어 온 유럽연합 등의 평가와 그 외의 여러 다른 윤리적인 판단방법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적절한 정당성의 평가가 없이, 모든 연구계획서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동물실험윤리의 명백한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이 윤리적인 실험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Key words : 동물복지, 동물윤리, 동물실험현황